

은 결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결실’이 ‘열매가 여물 또는 그런 열매, 성과를 뜻하므로 ‘결실이 맺어지다’는 중복된 표현이 아닌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틀리다’는 ‘맞다’의 반의어이고, ‘같다’의 반의어로 ‘다르다’가 문맥상 맞는 표현이다.
- ③ ‘내가 바라는 것은’이 주어이므로 이에 호응하여 ‘네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것이 아).’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신은’이 주어이고 이에 호응하여 ‘시련을 주다’라는 표현에 적절하게 ‘인간에게’라는 부사어를 집어넣어야 맞다.

적중: 『실전덕후단 오대학 국어 실전문제 464』 125번 문 125. 다음 문장의 쓰임이 바른 것은?

- ① 사후 수습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 ②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 3.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구곡간장(九曲肝腸)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
- ② 학문의 정도를 건지 않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이가 있다.
- ③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구밀복검(口蜜腹劍)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④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자세가 필요하다.

3. [정답] ④

[한자성어] 난도 中

‘당랑거철(螳螂拒轍)’은 무모하게 덤비는 것을 뜻하므로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과 어울리지 않는다. 신중함을 뜻하는 속담으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가 어울리고, 한자성어로는 ‘성화요원(星火燎原)’이나 ‘호시우보(虎視牛步)’가 문맥에 맞겠다.

성화요원(星火燎原): ‘작은 불씨가 퍼지면 넓은 들은 태운다.’는 뜻으로, 작은 일이라도 처음에 그러치면 나중에 큰 일이 됨.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같이 예리(銳利)하고 무섭게 사물(事物)을 보고 소같이 신중(慎重)하게 행동(行動)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 신중(慎重)을 기(期)함을 뜻함.

당랑거철(螳螂拒轍):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제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장자』의 「인간세편(人間世篇)」에 나오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구곡간장(九曲肝腸):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곡학아세(曲學阿世): 바른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 ③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적중: 『실전덕후단 오대학 국어 실전문제 464』 36번

문 36.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상통하는 속담은?

- 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36. [정답] ①

[한자성어와 속담] 난도 中

당랑거철 :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적중: <2022 진도별모의고사 18회> 5번

문 5.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상통하는 한자성어는?

.....그야말로 螳螂拒轍이요, 소위 공맹(孔孟)의 도학(道學)을 조박(糟粕)*만 할는 무리가 아닐까.

5. [정답] ①

[속담과 관련을 맺는 한자성어] 난도 上

‘당랑거철’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것과 관련을 맺는다. 이는 ①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문 4.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수: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

지민: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정수: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어.

지민: 맞아. 그중에서도 두괄식으로 답변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면접에서 그렇게 효과적인 줄 몰랐어.

정수: 어! 그래? 나는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지민: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정수: 그렇긴 해.

- ①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며 상대방의 이견을 반박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상대방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4. [정답] ③

[말하기] 난도 下

공감적 대화하기를 보여주는 제시문이다. ‘지민’은 ‘정수’의 말에 대해 “그랬구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고,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라고 하여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유사 적중: 『실전덕후단 오대학 국어 실전문제 464』 254번

문 254. 다음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사회자(남자) : ‘키워드로 알아보는 사회’ 시간입니다. 의료 서비스 시장 개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먼저 의료 서비스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말씀해주시죠.

김 박사(여자) :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넓습니다. 폭이 말라 사이다를 마시고 싶는데,

- ① 여자는 대비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여자는 유사한 사례를 들어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문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걷히더니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환순간에 사라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 있었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 완전한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었으니,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지.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출장입상하고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었구나. 이는 필시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하신 것이로다.’

- 김만중, 「구운몽」에서 -

- ① ‘양소유’는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 ② ‘양소유’는 인간 세상에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 ③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 ④ ‘성진’은 자신의 외양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한다.

5. [정답] ②

[고소설] 난도 中

‘성진’이 꿈속에서 깨어나 행자인 것을 안 것에 대해 “이는 필시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하신 것이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양소유’가 인간 세상의 무상함을 절절히 느끼는 가운데 꿈을 깨게 되고, 그것이 사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는 단서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성진의 꿈속 기억에서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라는 표현이 있어 꿈속 ‘양소유’의 장원급제 후 한림학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 완전한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었으니”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유사 적중: 『고갱이국어 3권』 397쪽 <구운몽> 해설

문 6. (가) ~ (라)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던 말가
 ㉠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흐믓며 못다 핀 곳이야 널리 무슴허리오.
- (나) 철령 노픈 봉에 쉬여 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孤臣冤淚)를 비 사마 띄여다가
 ㉡ 널 계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뿌려 본들 엇드리.
- (다)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잠고 이별흔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 저도 날 싱각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쏜만 오락가락 흐노매.
- (라) 삼동(三冬)의 뵘뵘 님고 암혈(巖穴)의 눈비 마자
 구름 썬 벗누도 썬 적이 업건마는
 서산의 ㉣ 흰 디다 흰니 그를 설워 흐노라.

- ① ㉠은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을 가리킨다.
- ② ㉡은 궁궐에 계신 임금을 가리킨다.
- ③ ㉢은 헤어진 연인을 가리킨다.
- ④ ㉣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을 가리킨다.

6. [정답] ④

[고전시가시조] 난도 中

(라)는 남명 조식(曹植: 1501~1572)의 작품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해’는 벗이 아니라 임금, 구체적으로는 숙종 임금을 가리킨다.

한겨울에 베로 지은 옷 입고, 바위굴에서 눈비를 맞고 있으며(벼슬한 적이 없이 산중에 은거한 몸이며)
구름 사이에 비취는 햇별도 썬 적이 없지만(임금의 은혜를 입은 적도 없지만)
서산에 해가 졌다(임금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

* 남명 조식은 초야에 묻혀 학문에만 전념하느라 조정에서 여러 번 불렀으나 평생 벼슬을 하지 않은 인물이다. 제시된 작품은 두류산(지리산)에 들어가 학문에만 전념하던 중에, 종종 임금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조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유응부’의 작품인 (가)의 ‘낙락장송’은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을 가리킨다.

지난밤에 불던 바람이 눈보라와 찬 서리를 몰아치게 했던 말인가? (과거)

낙락장송(정정하게 큰 소나무들)이 다 쓰러져 가는구나. (현재)
하물며 아직 못다 핀 꽃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미래)

* 단종이 즉위 후 숙부인 수양대군이 왕위 찬탈의 뜻을 품고, 정인지·한명회 등과 결탁하여 충신들을 죽이고 단종을 폐위시킨 계유정난을 풍자한 것.

- ② ‘이항복’의 작품인 (나)의 ‘님’은 궁궐에 계신 임금을 가리킨다.

철령 높은 고개 봉우리에 잠시 쉬었다가 넘어가는 저 구름아!
(임금의 버림받고 떠나는)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 비로 만들어 띄워 보내

임금이 계시는 깊고 깊은 궁궐에 뿌려 보면 어떠하겠는가?

* 광해군이 왕위를 지키려 선조의 적자(嫡子)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폐위시키려는 계락을 세우는 것에 반대해 함경도 북청으로 귀양을 가는 도중에 철령 고개를 넘으며 지은 시조.

- ③ ‘계량’의 작품인 (다)의 ‘저’는 헤어진 연인 ‘유희경’을 가리킨다.

배앗이 비 내리듯 흘날릴 때, 울면서 소매 부여잡고 이별한 임 (과거)
가을 바람에 낙엽이 지는 이때에 임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현재)
천 리나 되는 머나먼 길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소망)

* 촌은 유희경이 부안의 기생이었던 작자(1513~1550)와 정이 깊었는데, 유희경이 상경한 후로 소식이 없어서 작자가 수절의 다짐하며 지은 작품이다.

적중: 『고갱이국어 3권』 291쪽 <삼동에 뵘뵘 님고> 해설

.....서산에 해가 졌다(임금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



문 7.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의 승패를 ㉠ 했다.
-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 으로 나뉜다.
-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 할 수 없다.

- | | | |
|------|----|----|
| ㉠ | ㉡ | ㉢ |
| ① 가름 | 부분 | 구별 |
| ② 가름 | 부분 | 구분 |
| ③ 같음 | 부분 | 구별 |
| ④ 같음 | 부분 | 구분 |

7. [정답] ①

[어휘론] 난도 中

문맥상 ㉠에는 승부를 가르는 것이므로 '가름', ㉡에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눈 것의 부분을 뜻하므로 '부분', ㉢에는 '구별'이 적절하다.

가름: 1.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는 일. 2.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는 일.
 같음: 1.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2. 일한 뒤나 외출할 때 같이입는 옷.
 부분(部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나누어 놓은 낱말의 범위나 부분.
 부분(部分):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의 하나.
 구별(區別):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 또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
 구분(區分):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적중: 『실전덕후단 오대학 국어 실전문제 464』 448번
 문 448. 다음에 제시된 문장 중 어문 규정에 모두 맞게 표기된 것?
 ① 마을 안 사람들의 소출을 같음해 보기도 하는 이 날은 그림으로 작은 잔치가 되게 마련이었다.
 <해설>
 ① '같음 → 가름', '그림으로 → 그러므로'
 * 같음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 가름 :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봄. 또는 헤아려 보는 목표나 기준.

적중: <2022 진도별모의고사 12회> 19번
 문19. 다음 밑줄 그은 단어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①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하면서 어쭙잖게 남의 일에 끼어들다니.
 ②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주식의 값이 오를 것인지 가름을 할 수 없다.



문 8. 다음 글의 '동기화 단계 조직'에 따라 (가) ~ (마)를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득하는 말하기의 메시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동기화 단계 조직'이 있다. 이 방법의 세부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주제에 대한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한다.
 2단계: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다.
 3단계: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4단계: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한다.
 5단계: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 (가) 지난주 제 친구는 일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 (나)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다) 아마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2천여 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고생한다고 합니다.
- (라) 만약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착용한다면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뇌손상을 비롯한 신체 피해를 75%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 (마)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가) - (나) - (다) - (라) - (마)
- ② (가) - (다) - (나) - (라) - (마)
- ③ (가) - (다) - (라) - (나) - (마)
- ④ (가) - (라) - (다) - (나) - (마)

8. [정답] ②

[말하기-설득] 난도 中

동기화 단계를 활용한 내용 조직의 구체적 표현의 순서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1단계(관심): 주제에 대한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한다.
 * 화자의 말을 경청하게 만드는 것. ⇨ (가)
 2단계(요구):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다.
 * 특정 문제를 다루면서 문제 상황을 인식하도록 하고, 개선점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 ⇨ (다)
 3단계(만족):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 청자에게 개선점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 ⇨ (나)
 4단계(요구):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한다.
 * 이득과 손해를 제시하는 것. ⇨ (라)
 5단계(행동):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 청자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명백히 행동을 요구하는 것. ⇨ (마)

문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수행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자체 확보한 공공 데이터와 ○○시로부터 받은 복지 사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공감 지도’를 제작하고,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 공감 지도는 공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에 소재한 복지 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과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이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며, 생필품 지원이나 방문 상담 등 복지 기관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최적의 복지 기관 설립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그동안 복지 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 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 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복지 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 ③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된다.
- ④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

문10. ㉠ ~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첫째, ‘아침 먹고 또 공부하자.’에서 ‘아침’은 본래의 의미인 ‘하루 중의 이른 시간’을 가리키지 않고 ‘아침에 먹는 밥’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밥’의 의미가 ‘아침’에 포함되어서 ‘아침’만으로도 ‘아침밥’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 것으로, ㉠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여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 경우이다. 둘째, ‘바가지’는 원래 박의 껍데기를 반으로 갈라 쪼든 물건을 가리켰는데, 오늘날에는 흔히 플라스틱 바가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 변화가 발생한 경우이다. 셋째, ‘묘수’는 본래 바둑에서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려운 좋은 방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시절에 사람들은 ‘호랑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기 꺼려서 ‘산신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그것을 대신하는 단어의 의미에 변화가 생긴 경우이다.

- ① ㉠: ‘아이들의 코 묻은 돈’에서 ‘코’는 ‘콧물’의 의미로 쓰인다.
- ② ㉡: ‘수세미’는 원래 식물의 이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 ③ ㉢: ‘배꼽’은 일반적으로 ‘땀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
- ④ ㉣: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를 꺼려서 ‘손님’이라고 불렀다.

10. [정답] ③

[어휘론] 난도 中

㉢은 의미의 일반화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선택지에 제시된 ‘배꼽’은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다가 바둑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도 사용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아침’이 ‘아침밥’을 말하듯, ‘코’가 ‘콧물’을 뜻하는 말로 넓게 사용된다.
- ② 시대 변화에 따른 단어의 의미 변화도 발생함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수세미가 식물 이름에서 그릇 씻는 물건으로까지 확대돼 사용됨 보여줌.
- ④ 금기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천연두’를 ‘손님’이라 부른 것이 예가 됨.

유사 적용: <2022 진도별모의고사 6회> 13번

문13. 다음 중 ㉠과 ㉡의 특성을 보이는 단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전자의 경우를 의미의 특수화, 후자의 경우를 ㉠ 의미의 일반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미 평가 변화는 ㉡ 타락적 변화와 개선적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의미 변화의 결과로, 그 단어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발생한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의미가 없어지거나 새롭게 긍정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

- | | | |
|------|---|--------|
| ㉠ | - | ㉡ |
| ① 미인 | - | 마누라 |
| ② 거래 | - | 내시(內侍) |
| ③ 영감 | - | 장인(匠人) |
| ④ 얼굴 | - | 마누라 |

9. [정답] ④

[독해-내용 추론] 난도 下

복지 공감 지도는 공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 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과 이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이 지도를 활용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지만,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는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공감 지도’를 제작하고,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추리가 가능하다.
- ② 세 번째 문단에서 “복지 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 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 등도 언급되면서 복지 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 ③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 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내용을 통해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 적용: 『실전덕후단 오대역 국어 실전문제 464』 391번 문 391.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 동기(動機)를 사용한다. 동기는 사람 안에 존재하는 힘으로, 뚜렷한 목적이 있는 행동을 시작하게 하며 그 행동을

391. [정답] ④

[추론] 난도 中

3단락에서는 사람들은 보상이나 대가가 없는데도, 자극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 어떤 동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따라 그 행동의 동기에 대한 설명이 결정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문1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 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농장 근처에 신축된 골프장의 빛 공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골프장이 야간 운영을 시작했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 농장의 수확률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군에서도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농장과 골프장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① 시장에게 빛 공해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 ②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③ 다른 지역에서 야간 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 ④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11. [정답] ②

[독해-내용 일치] 난도 下

제시문에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라고는 했지만 인용한 자료의 출처가 제시된 것은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농장 근처에 신축된 골프장의 빛 공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군에서도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다른 지역에서 야간 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언급하였다.
- ④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합니다.”라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유사 적용: 『실전덕후단 오대혁 국어 실전문제 464』 21번
문 21. 다음 글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것은?

붓글씨는 점획이란 형태와 필선이란 질량으로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 필선의 질량, 곧 선질은 글씨의 두드러진 특성이자 글씨 감상의 궁극적 대상이기도 하다. 선질은

21. [정답] ③

[내용의 일치] 난도 中

‘먹물은 단순한 무채색의 검정이 아니라 다채로운 검은 색을 띤다. ~ 나무의 종류나 연소 방법의 차이 또는 물과의 조합 비율에 따라 미미하게 흑자색이나 암청색 등의 다양한 색깔을 띠기도 한다.’라는 진술 속에서 먹물은 단순한 무채색으로 표현할 수 없고,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 ③은 부합하지 않는다.

문12. 다음 대화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진: 태민아, ㉠이 책 읽어 봤니?
 태민: 아니, ㉡그 책은 아직 읽어 보지 못했어.
 이진: 그렇구나. 이 책은 작가의 문체가 독특해서 읽어 볼 만해.
 태민: 응, 꼭 읽어 볼게. 한 권 더 추천해 줄래?
 이진: 그럼 ㉢저 책은 어때? 한국 대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재미있는 책이야.
 태민: 그래, ㉣그 책도 함께 읽어 볼게.
 이진: (두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간다.) 읽어 보겠다고 하니, 생일 선물로 ㉤이 책 두 권 사 줄게.
 태민: 고마워. 잘 읽을게.

- ① ㉠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 ② ㉢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 ③ ㉢과 ㉣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 ④ ㉤은 ㉡과 ㉢ 모두를 가리킨다.

12. [정답] ②

[품사지시 관형사] 난도 中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그: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적용: 『실전덕후단 오대혁 국어 실전문제 464』 341번

문 341.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점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 지금 당장 출발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가세요.
- 제가 ㉣저 곳을 드리겠습니다.

- ① ㉠: 화자에게 가까이 있거나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② ㉡: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청자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 화자는 모르지만 청자는 아는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가까이 위치한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341. [정답] ②

[품사-대명사, 관형사] 난도 中

㉢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쓰인 것이다.

문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 또는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전근대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에 이르러 구빈법에 따른 국가 개입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1922년 잭 여사는 아동권리사상을 담아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성문화하였다. 이를 기초로 1924년 국제연맹에서는 전문과 5개의 조항으로 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든지 “아동의 재능은 인류를 위해 쓰인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아동은 보호되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2016년 「아동권리헌장」 9개 항을 만들었다. 이 헌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 받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 등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문에는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 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 ② 「아동권리헌장」은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 ③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헌장」에는 모두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 ④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이루었다.

13. [정답] ④

[독해-내용 일치] 난도 中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에 대해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라는 진술을 통해 ④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의 “근대사회에 이르러 구빈법에 따른 국가 개입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라는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셋째, 넷째 문단의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이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2016년 「아동권리헌장」이라 하여 맞는 진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의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이란 표현, 「아동권리헌장」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는 「아동권리협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사 적용: 『실전덕후단 오대륙 국어 실전문제 464』 427번 문 27.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냉전’이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 및 그 동맹국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전개된 제한적 대결 상태를 말한다.

- ① 전통주의는 소련이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해 팽창 정책을 추진했다고 본다.

427. [정답] ②

[독해-내용의 일치] 난도 中

수정주의는 소련이 적극적 팽창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본다. 미국이 유럽에서

문14.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울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 신동엽, 「봄은」 —

- ①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 ②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봄’과 ‘겨울’의 이원적 대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4. [정답] ①

[현대시] 난도 下

신동엽의 「봄은」은 남북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실을 극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작품이다.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한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② “오지 않는다.”,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 움트리라.” “그 미움의 쇠붙이들 / 눈 녹이듯 흐물흐물 / 녹여버리겠지.”라는 표현이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 어조이다.
- ③ ‘봄’은 남북 분단을 극복한 통일의 세상을, ‘아름다운 논밭’은 한반도를, ‘겨울’은 남북 분단의 상황을 상징하면서 분단 극복의 세상을 꿈꾼다는 주제를 형성한다.
- ④ ‘봄’은 통일, ‘겨울’은 ‘분단’이라는 이원적 대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유사 적용: 『고갱이국어 3권』 84쪽 교과서 지문 읽기 ‘4. 봄은’ 해설

문15.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련하면 그 작동도 원활하게 될 것이요, 수리하지 아니하여 노둔해지면 그 작동도 막혀 버릴 것이니 이런 기관을 다스리지 아니하고야 어찌 그 사회를 고취하여 발달케 하리오.
- (나) 이따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하여 그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
- (다)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그 인민들이 서로 이어져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오.
- (라)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점점 녹슬고 상하여 필경은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그 사회가 어찌 유지될 수 있으리오. 반드시 패망을 면하지 못할지라.
- (마)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에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

- 주시경, 「대한국어문법 발문」에서 -

- ① (마) - (가) - (다) - (나) - (라)
- ② (마) - (가) - (라) - (다) - (나)
- ③ (마) - (다) - (가) - (라) - (나)
- ④ (마) - (다) - (나) - (가) - (라)

15. [정답] ④

[쓰기-문장의 순서] 난도 中

연결고리들을 잘 살펴서 순서를 정해야 한다. 유사 표현이 있는 것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잘 고려하여 답해야 한다.

(마)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에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사회는 뜻이 통하고 힘을 잇는 것: A = B)

(다)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며(뜻이 통함),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그 인민들이 서로 이어져(이어짐)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오.** (말과 글은 뜻을 통하고 잇게 함: C = B)

(나) **이따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하여 그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 (말과 글은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며 사회 경영의 기관: C = D)

(가)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련하면 그 작동도 원활하게 될 것이요, 수리하지 아니하여 노둔해지면 그 작동도 막혀 버릴 것이니(부정적 상황) 이런 기관을 다스리지 아니하고야 어찌 그 사회를 고취하여 발달케 하리오.** (이 기관을 원활히 하면 좋고, 노둔해지면 문제: D→Yes, ~D→No)

(라)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점점 녹슬고 상하여 필경은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그 사회가 어찌 유지될 수 있으리오.** (부정적 상황) 반드시 패망을 면하지 못할지라. (~D→No))

유사 적용: 『실전덕후단 오대역 국어 실전문제 464』 75번

문 75. 다음 글을 논리적 순서에 맞춰 재배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ㄱ. 분단의 잣대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식으로 사상과 정치적 견해에 대한 자기 검열을 강요해 왔고, 이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의미 자체가 왜곡된 채 그 허상만 난무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ㄴ.

- ① ㄱ - ㄴ - ㄷ - ㄱ - ㄷ - ㄴ - ㄱ
- ② ㄴ - ㄱ - ㄷ - ㄷ - ㄴ - ㄱ

75. [정답] ③

[문장의 연결] 난도 中

문장의 연결은 각 문장의 핵심어들을 연결하면 쉽게 풀린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비슷한 '분단'이라는 용어가 똑같이 등장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때는 그 의미를 따져가며 연결해 나가야 한다.

- ㄴ. 우리 사회의 내부적 분단은 ~ 국민을 어느 한쪽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 ㄷ. 분단의 잣대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식
- ㄷ. 분단의 잣대를 ~ 온 국민을 북한파와 남한파로 편 가르기 해야 하는 것처럼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
- ㄱ. 게다가 이러한 편 가르기로 ~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 처절한 분단의 희생자로 만드는 것일 뿐이다.
- ㄹ. 분단을 평생 탓하며 분단의 모순과 폐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온 사람들이 분단의 잣대에 익숙해져 버린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 ㅂ.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문16.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 협상에서 만족(滿足)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② 김 위원의 주장을 듣고 그 의견에 동의하여 재청(再請)했다.
- ③ 우리 지자체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解結)할 방안이 생각났다.
- ④ 다수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재론(再論)이 필요하다.

16. [정답] ③

[한자] 난도 上

쉬운 듯, 어려웠을 문제다. 우선 한자어의 의미를 먼저 추리해야 한다. '해결'은 문제를 푸는 것을 뜻한다. 풀다는 의미에 부합하는 글자여야 한다. 그런데 한자 '結'이 맺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문제가 있음을 파악했어야 답이 명확해진다.

解(1. 풀다, 벗다, 깨닫다, 설명하다(說明-)) 2. 풀이하다 3. 깨닫다)
 決(결. 결단하다, 승부를 가리다, 결정하다, 판단하다)
 解決: 얽힌 일을 풀어 처리(處理)함.
 * 結(맺을 결). 결정(決定)하다, 결론(結論), 결석(缺席, 缺(빠질 결)), 척결(剷抉, 抉(도려낼 결))

<오답 피하기>

- ① 滿(가득 찰 만) 足(만족할 족).
- * 晚(저물 만. 만추晩秋), 瞞(속일 만. 기만欺瞞)
- ② 再(다시 재) 請(청할 청): 다른 사람의 동의(動議)에 대(對)하여 찬성(贊成)하는 뜻으로 거듭 청(請)함.
- ④ 再(다시 재) 論(말할 론(논)): 이미 논의한 것을 다시 논의함.

유사 적용: 『실전덕후단 오대역 국어 실전문제 464』 130번 해설 [고갱이]

해결(解決)의 관건(關鍵)

그리고 그 서글픈 풍경 저편에는 상실의 아픔이 도사리고 있다. 현의 정체성은 분명히 과거의 삶에서 형성되었고, 또 뿌리를 과거에 둔 것이 확실하면서도, 과거의 삶이 현재는 너무나 미력하다는 인식에 비애감을 느끼는 것이다. 머릿수건이 사라지고 기생이 퇴조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현의 내면은 옛 것에 대한 아련한 향수에 젖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옛 것의 격조를 퇴색케 하는 시대적 흐름에 그는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 **주제:**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술가의 비애, 예술가 정신의 고고함이 지켜지지 않는 세태에의 절망, 일제에 의해 말살되어 가는 전통에 대한 애정과 민족의식

유사 적용: 『실전덕후단 오대역 국어 실전문제 464』 207번 문 207.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현은 한참 난간에 의지해 섰다가 슬리퍼를 신은 채 강가로 내려왔다. 강에는 배 하나 지나가지 않는다. 바람은 없으나 등골이 오싹해진다. 강가에 흩어진 나뭇잎들은 서릿발이 끼쳐 은중이처럼 번뜩인다. 번뜩이는 것을 찾아 하나씩 밟아 본다.
 "()"
 주역에 있는 말이 생각났다. 서리를 밟거든 그 뒤에 얼음이 올 것을 각오하란 말이다.
 - 이태준, <패강령> 중에서 -

- ① 履霜堅冰至 ② 李下不正冠

207. [정답] ①

[한문-한자성어와 한문]

..... **소설은 점점 순수함을 지키는 지식인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현실에 대한 암담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문19.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 (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① (가)에 따라 '아래 + 집'은 '아랫집'으로 적는다.
- ② (가)에 따라 '쇠 + 조각'은 '쇠조각'으로 적는다.
- ③ (나)에 따라 '전세 + 방'은 '전셋방'으로 적는다.
- ④ (나)에 따라 '자리 + 세'는 '자리세'로 적는다.

19. [정답] ③

[한글맞춤법-사이시옷의 표기] 난도 下

'전세방'은 한자어 '전세(傳貰)'와 한자어 '방(房)'이 결합되어 [전세방]이라는 사잇소리현상이 벌어지지만,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에는 '차간(車間), 뒷간(退間),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횡수(回數)'를 제외하고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전세방'이라 쓰는 것이 맞고, '전셋방'이라 쓰는 것이 틀린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에 따라 '아래(순우리말) + 집(순우리말)=아랫집[아래집/아랫집]
- ② (가)에 따라 '쇠(순우리말) + 조각(순우리말)=쇠조각[쇠조각/쇠조각]
- ④ (나)에 따라 '자리(순우리말) + 세(稅)=자리세[자리세/자리세]

적용: 『실전덕후단 오대역 국어 실전문제 464』 386번

문 386. 다음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예들 중 일부이다. 아래 보기의 설명 가운데 이 예들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것은?

빗물, 뒷갈망, 사삿일, 붓독

- ①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문20.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은?

문화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생각과 행동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이다.

이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문화를 생각의 전염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예컨대, 리처드 도킨스는 '밈(meme)'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각의 전염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복수의 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전자에 저장된 생명체의 주요 정보가 번식을 통해 복제되어 개체군 내에서 확산되듯이, 밈 역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에서 복제를 통해 확산된다.

그러나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일례로, 요크셔 지역에 내려오는 독특한 푸딩 요리법은 누군가가 푸딩 만드는 것을 지켜본 후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기보다는 요크셔 푸딩 요리법에 대한 부모와 친척, 친구들의 설명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생명체의 경우와 달리 문화는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 않는다. 전파된 문화와 그것을 수용한 결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요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은 다른 지방의 푸딩 요리법과 변별되는 특색을 지니는 동시에 요크셔 지방 내부에서도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푸딩 요리법의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준 정보에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인데, 복제의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의사소통 이론으로는 설명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할 때 들은 이야기에 다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 ① 문화의 전파 기제는 밈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문화의 수용 과정에는 수용 주체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 ③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로 복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 ④ 요크셔 푸딩 요리법이 요크셔 지방의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20. [정답] ①

[독해-세부내용 파악] 난도 下

제시된 지문만 확인하면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내용과 함께 ①을 뒷받침해준다.

- ② '의사소통 이론으로는 설명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할 때 들은 이야기에다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이라는 표현을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의사소통 이론은 '밈' 이론과 같은 복제가 아니라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준 정보에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형태이다.
- ④ 요크셔 푸딩 요리법은 밈 이론이 아니라 의사소통 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유사 적용: 『실전덕후단 오대역 국어 실전문제 464』 49번

문 49.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책을 보기 위해서는 책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을 본다는 것은 대상에서 방출되거나.....

- ① 물리학자들은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다.
- ②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전자의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한다.
- ③ 플래시를 ...

49. [정답] ④

[독해-세부 내용 파악]

다섯째 문단에서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환시켜 운동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